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구축

시, 22일 팔복동 전주혁신창업허브 내 건립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 진행 5월 26일 설계 작품 접수·6월 2일 작품 심사... 2023년까지 280억원 투입 조성

지역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전주혁신창업허브에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동에 이어 창업 후 성장을 돕는 성장동까지 들어선다.

전주시는 오는 22일 팔복동 전주혁신창업허브 내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을 진행한다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60억원을 포함한 총 28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650㎡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구축된다.

이곳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네트워킹 공간,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시스템 구축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에서 창업 이후 성장이 필요한 기업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주변 시설과의

조화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시는 참가신청을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6일 설계 작품을 접수한다. 이후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꾸려 6월 2일 작품 심사를 실시한다. 건축사들의 공모안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작품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든 과정이 유튜브(전주시 LIVE)로 생중계된다.

시는 6월 중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당선작을 게시하고, 최종 당선작에 설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8개월 간의 설계기간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22년 3월 공사에 착수해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팔복동 전

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을 개관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창업동은 기업 입주공간과 회의실, 교육실 등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갖춰졌다.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과 기업육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공정형 지식산업센터 기능을 가진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는 입주기업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건립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pps.go.kr) 입찰공고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수소경제탄소산업과(281-25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열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전주시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17일 전주시혁신센터 세미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주시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를 비롯해 경찰, 교육지원청, 고용복지+센터,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선정하고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청소년안전망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던 뒤 1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

선정과 지원내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 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jisangda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혜선 센터장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양한 지역 연계 지원들을 이끌어 내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들의 사례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 심리·정서적 지원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살뜰히 챙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안전망은 1388명 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해 ▲사랑의빵나누기(공천제과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 ▲무료스케일링(온가족치과의원) ▲무료 헤어컷트(나무헤어) ▲무료 문신 제거(한빛안과, 고은미래의원) ▲사랑 MOA사랑DREAM(원광모자원 기초푸드뱅크) 등의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봄철 산불 대비 소방·경찰 합동훈련

전주시가 산불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17일 완산소방서와 완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3~4.18) 대비 봄철 산불 상황조치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삼천동 지역에서 발생

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광화동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산불 발생 초기 대응 단계부터 확산 대응, 총력 대응, 진화 등 수습·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등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시는 산불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화 장비 및 인력 투입 ▲차량 및 주변도로 통제 ▲대피소 및 임시주거 시설 확보 ▲자원봉사자 인력동원 ▲주민 대피 유도 ▲응급의료소 운영 등 상황별·기관별 조치사항들을 점검했다.

또한 시는 산불 발생 시 전라북도청과 산림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응 상황도 확인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다채로운 힐링공연 펼친다

연말까지 복지시설·전라감영·도서관 등 곳곳서 찾아가는 공연·기획 공연 등 진행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예술치유 공연을 펼친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올 연말까지 복지시설과 전라감영, 도서관 등 곳곳에서 ▲찾아가는 공연 ▲찾아오는 공연 ▲전라감영·경기전 기획 공연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낭독 공연 등 다채로운 힐링공연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힐링공연에는 전주시립예술단 소속의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극단이 참여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찾아가는 공연'의 경우 시립예술단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공연을 펼친다.

'찾아오는 공연'은 덕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중학교 음악 교과과정과 연계한 공연 프로그램과 모든 세대가 관람 가능한 소규모 낭독극, 뮤지컬 공연이 이어진다.

전라감영과 경기전에서는 시립국악단의 전통음악 시리즈인 '연향'과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줄 '별빛 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들을 위해 예술치유 공연을 펼친다.

전주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낭독 공연'의 경우 '마당을 나온 암탉'과 '오라차차 조선실록' 등의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이와 함께 전주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리기 위해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주시립예술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연주곡을 선정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할 것"이라며 "공연 진행 시 관람객들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단운영사업소(281-6659)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야호부모학교' 개교식 열려

시, 유튜브 생중계... 박혜란 작가 초청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특강

전주시는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부모교육 협력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전주야호부모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날 개교식에는 약 35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교식에서는 야호부모학교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여성학자인 박혜란 작가의 특강이 진행됐다.

박 작가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주제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전주야호부모학교는 올해에도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별 부모교육을 300회 이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야호부모교육 홈페이지(jeonju.go.kr/yah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는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부모교육 협력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전주야호부모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신명애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전주야호부모학교는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부모

역할이 무겁지 않고 자녀의 성장과 함께 행복이 커져갈 수 있도록 야호부모학교가 평생 부모교육 멘토로 시민 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